

#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대전 환경정책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전충남녹색연합

## 사업목적 및 배경

지구가 각종 환경 문제로 아파하고 있다. 대기는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오염되고, 지구는 뜨거워지며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생물의 종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강의 녹조와 오염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구가 오염되면 가장 아픈 사람은 누구일까? 어른일까? 아니다. 이 땅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 청소년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만든 입시 제도에 어쩔 수 없이 매몰되어 쳇바퀴 굴러가듯 공부만 하고 있을 뿐 환경엔 관심이 없다.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다시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그 제안이 실제 환경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경험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전충남녹색연합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중앙로 121번길 44  
창성빌딩 202호

전 화 042-256-2464

팩 스 042-256-2466

이메일 tjla21@hanmail.net

# 청소년환경정책발굴 아이디어 대회

일시 : 2015년 10월 24일(트) 13:00~18:00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청 2층 대강당



전청소년환경대상이다.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환경이 중요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라는 것을 전달한다면 지루한 강의가 될 뿐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환경권을 확보하고, 환경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대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환경대상을 기획했다.

## 사업내용

“팅 빈 외곽 노선 시내버스를 꼭 대형버스로 배치해야 할까요? 버스 크기를 소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정고, 김명성 신재빈)

“시내버스 태그단말기가 내리는 문 오른쪽에만 있어 불편합니다. 왼쪽에도 추가로 더 설치했으면 합니다” (대신중, 정승민 김태영)

“동전 대신 폐건전지를 넣는 게임기 어때요?” (서일고, 권용호 김세영)

심사위원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대전지역 중고생들이 ‘뜨거워지는 지구를 살리는 방법’을 놓고 벌인 창안대회장(대전청소년환경대상)은 박수와 웃음으로 떠들썩했다. 대회가 열린 4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청중들은 한시도 무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만큼 신선한 아이디어와 발랄한 몸짓이 쏟아졌다.

24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청 2층 대강당에는 대전 지역 중고생들이 자리를 메웠다. 이중 24명(12개 팀)은 예선을 통과해 결선에 진출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결선에 오른 학생들을 응원하거나 참관하러온 청중들이다. (오마이뉴스 [‘뜨거워지는 지구’ 식하는 청소년 아이디어 ‘톡톡’ 기사 중 일부])

지역 언론에 실렸던 청소년 환경대상 기사 중 일부다. 청소년 환경대상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하고, 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이 투표를 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이 아이디어 대회는 이렇게 4시간이 진행되지만 딱 4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4시간을 위하여 몇 달을 준비한다. 그 준비 과정을 살펴보자.

**제6회 청소년 환경대상**

**지구온난화 & 미세먼지 아생동물 대전**

**참가대상**  
충주시민 누구나(초·중·고)  
시정이나 시정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대회주제**  
지구온난화(기온 상승) 관련 주제  
미세먼지는 지구를 구할 미생동물  
인간과 미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아이디어

**신청방법**  
충주시청 홈페이지  
홈페이지(www.korea.org)에 참가하여 신청  
접수 이메일: 호세남@greenkorea.org

**진행일정**  
시정이나 시정단체 ~ 9월 9일  
시정단체 및 11월 11일  
예선 11월 11일  
결선 11월 11일  
우수 2017년 1월 11일 ~ 11일

**시정단체**  
대상 1명 / 최우수상 2명 / 우수상 2명 / 일반상 2명

**대회후원**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문의: 대전광역시청 생활환경과 | TEL: 261-3041 | FAX: 268-1578

주최: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의회, 주관: 대전광역시청 생활환경과, 후원: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교육청

## 추진과정

청소년환경대상은 사전접수 - 사전설명회 - 아이디어 공모 - 예선준비워크숍 - 예선 - 결선준비워크숍 - 결선 - 해외연수의 과정을 거치는 3~4개월간의 여정이다.

청소년환경대상을 시작하면 청소년들은 청소년환경대상 사전접수를 하고, 사전설명회에 참여 한다. 사전설명회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방법, 청소년 환경대상을 준비하는 방법, 일정 등을 공유한다. 사전설명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 중에서 심사를 통해 24팀이 예선을 준비한다. 예선에 앞서 예선준비워크숍을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에 나왔던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들이 피드백을 해준다. 그리고는 예선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예선이 끝나면 12팀이 결선에 진출한다. 결선까지 전문가들에게 멘토링을 받고, 자기 팀의 아이디어를 모의 실행해본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결선에서 발표한다. 결선에서 수상한 팀은 해외환경연수를 가게 된다.

대회에서 나온 우수 아이디어는 대전발전연구원의 검토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보고서로 제작되고, 이를 대전광역시에 환경정책 아이디어로 제안한다. 대전광역시는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준다. 이 중에 우수한 아이디어는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지난 4회 대회 때 나왔던 버스정류장에 녹색커튼을 설치하는 아이디어의 경우, 주민 공모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주민들과 함께 녹색버스정류장도서관으로 아이디어가 발전되어 진행 중이며 2016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 행사의 특징

청소년환경대상은 5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전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의 장이 되었다. 아이디어를 단순히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극이나 음악 등으로 발표를 하다보니 경연대회 자리가





매우 즐겁다. 자전거의 유용성을 발표하는 학생의 경우 사이클 복을 입고 발표를 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청소년 환경대상은 발표하는 사람도, 발표를 평가하는 청중도 즐겁다보니 대회라는 생각보다 축제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아이디어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실행해 보고, 조사해 보고, 실험해 보는 것이다. ‘크레아토르’ 팀(대전고, 서대민 김태욱)은 로컬푸드 환경교육센터 정책의 실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초등학생과 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농작물재배 체험을 하게 한 후 여론조사를 벌였다. ‘달려라 대전 달려라 지구’ 팀(충남기계공고, 이승한 김성현)은 대전 시내 곳곳을 돌며 자전거 캠페인을 펼치고 1,500여명의 시민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 정책에 반영했다. ‘투정’ 팀(서일여고 신정, 조문정)의 경우 학교 급식에서 채식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친구들을 설득해서 채식을 모의 실험 해봤고, 병원을 섭외해 하루 동안 채식을 실험해 보기까지 하는 등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험해봤다. 정책 대안을 만들기 전 현장 방문과 전문가 자문은 모든 팀이 받았다. 이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학업으로 바쁜 외중에 시간을 내서 자문을 구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현장에 직접 발로 뛰며 조사를 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랬던 만큼 많이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경험보다 좋은 교육이 없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 5회 대회에 참여했던 동방고 황서영 학생의 후기 중 일부이다. 대회에서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단체들, 관공서, 공기업 등을 방문하며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소년 환경대상을 통해 민-관-기업의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지역의 시민단체인 대전충남

녹색연합은 모집 및 진행을 하고,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진행 논의, 홍보, 예산 지원, 지속가능발전의 지표를 조언해준다. 지자체는 장소 협조에 도움을 주고, 정책 지원을 하고, 멘토링을 한다. 지역의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인 (사)디모스는 예선 및 결선 청중평가단 ARS 시스템을 지원한다. 각자의 역할을 하기에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제 선정, 심사, 정책 선정에 있어서는 민-관-기업이 모여서 의견을 나눈다. 때로는 따로 때로는 함께 민-관-기업의 거버넌스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청소년 환경대상이다.

### 사업평가와 과제

청소년환경대상의 문제점은 청소년의 참여가 적다는 것이다. 100여명의 청소년만이 참여를 한다. 어찌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전의 청소년 인구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적은 숫



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방법이 시도 됐다. 매년 학교로 포스터를 보내고, 거리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공모전 사이트와 시민단체, 관공서 사이트에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가자 수가 조금씩 늘기는 했지만 크게 늘지 않았다. 6회 대회 때는 SNS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주제를 선정할 때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 그리고 그 동안 이메일로만 받던 공모를 구글 문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받기 시작했다. 이것이 잘 반영된 것인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참가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참가팀이 60팀 120명에서 95팀 190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참가팀이 늘어난 요인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홍보 방안을 잘 활용해야겠다.

그리고 매년 대회를 치루면서 고민했던 것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장하는 방법이다. 대회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청소년들의 준비 과정이 뛰어나서 놀라는데 이를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고민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청중평가단이다. 청중평가단은 TV프로그램 ‘복면가왕’이나 ‘듀엣가요제’처럼 청중들이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다. 청중들을 초대해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ARS 투표기기로 투표를 하는 것이



다. 청중평가단은 발표를 하는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 모집을 한다. 매년 청중평가단은 200~300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 청중평가단의 장점은 참가자 100명 정도의 청소년만 관심을 가졌던 환경을 300~400명까지 관심을 가지게 해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중평가단으로 청소년환경대상을 접했던 청소년들이 다음 해에 청소년 환경대상에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제는 나아가 다음 대회에는 온라인 방송을 생각하고 있다. 친구들이나 환경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발표를 듣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면 프로그램 참가자가 100명에서 400명, 400명에서 1,000명까지도 확장 되지 않을까?

대전의 대표 청소년 환경프로그램인 청소년환경대상. 청소년 환경대상을 통해 나온 청소년들의 환경 정책 아이디어가 대전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꾸길 기대해 본다.